

渤海醫學에 對한 研究

이정록*, 김홍균**, 유원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역사학과*, 한국전통의학사연구소**,

경희대학교 사학과***

Abstract

A Study on the Medical Science of Balhae(渤海)

This study was examined to reveal the medical Science of Balhae which was not well displayed until now. For this, the category of the medical science of Balhae(渤海) was decided in diachronic and synchronic perspective and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medical science of Balhae(渤海) was presumed.

Balhae(渤海) succeeded to the medical science of Koguryo(高句麗) and its orthodoxy. Through the interchange between Balhae(渤海) and the country as Dang(唐) and Shilla(新羅), Balhae(渤海) accepted new medical knowledge.

Balhae(渤海) had a customs to eat a cake made of rice flour and artemisia paste on the Tano Festival(端午) to overcome its constitutional character. And medicines as Gon-po(昆布), Doo-shi(豆豉) were treated valuable. and they used Ondol(溫突).

Balhae(渤海) advanced suigeneris abscess medicine(治腫醫學), and they valued much of Hyangyak(鄉藥). And they took the serious view on the scripture in the education and on the simplic in the clinic. It shows Balhae(渤海) had the unique medical tradition of our nation.

The medical institution and medical educational system of Balhae(渤海) was fundamental to that of Koguryo(高句麗), and it was established in the reference of the system of Dang(唐) and Shilla(新羅). It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system and medical education of Corea(高麗) later on. And the medical doctor of the Balhae(渤海) who was dispatched to Japan imparted the advanced medicine of Balhae(渤海) and it was fundamental to the Japanese medical development.

Balhae(渤海) produced superior acupuncture on the basis of superior materials which are represented as metalwork technology and Corea-copper(高麗銅) which are handed down from the Old-Chosun(古朝鮮) and Koguryo(高句麗). And we can suppose the level of Balhae(渤海) through the fact that the acupunctual technique of Koguryo(高句麗) was spread out to the nearby country.

By the tradition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 theory of Bi-bo(裨補) that cure a disease on the theory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ppeared in the north and south branch period(南北國時代). And we can prusure the level of acupuncture of Balhae(渤海) through this fact.

Balhae(渤海) educated herbal medicine with priority given to Shin-nong-bon-cho-kyong(神農本草經) stand on the serious view on the scripture. They produced a various herbs on the basis of broad territory and suigeneris herbal medicine. It is famous herb of Balhae(渤海), that To-sa-ja(菟絲子), Gon-po(昆布), Doo-shi(豆豉), Ginseng(人蔘), Woo-hwang(牛黃), Song-ja(松子), Hwang-myung-kyo(黃明膠), Baek-bu-ja(白附子), Sa-hyang(麝香), Honey(蜜).

緒 論

발해는 고구려 멸망 이후 30년만인 서기 698년, 고구려 장군이었던 대조영에 의해 건국된 국가로 926년에 거란의 침입을 받고 멸망하기까지 229년간 15대에 걸쳐 남쪽의 신라와 더불어 남북국시대를 형성하였다. 발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고구려를 계승하였고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고 발전시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해동성국이라 불린 국가이다.

이미 역사학의 분야에서는 발해와 신라가 공존하던 시기를 남북국시대로 설정하고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다루고 있는 반면, 醫學史 분야에서는 발해를 한국의학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연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발해를 우리 역사로 보고 적극 연구하려는 노력은 한국의학사에서 마땅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고유 의학의 정통성의 계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유 의학의 큰 흐름에서 볼 때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의학적 전통이 이후에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본이 되는 史料가 부족하여 연구에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의학사에 金斗鍾이 미친 영향¹⁾으로 인해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이다. 고구려가 계승하였던 고유의 의학적 전통을 발해가 계승하였으

¹⁾ 김홍균은 『韓國醫學史』를 통해 알 수 있는 김두중의 역사관은 전반적으로 외래의학에 예속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다분하다라고 주장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그의 역사관은 일제식민사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았다.(김홍균, 『高麗時代 醫學史觀 叱正(1)』,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Vol.9/No.1(통권10호), 2003, p.3과 9) 따라서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저술한 『韓國醫學史』는 올바른 사관을 바탕으로 연구해야 할 한국의학사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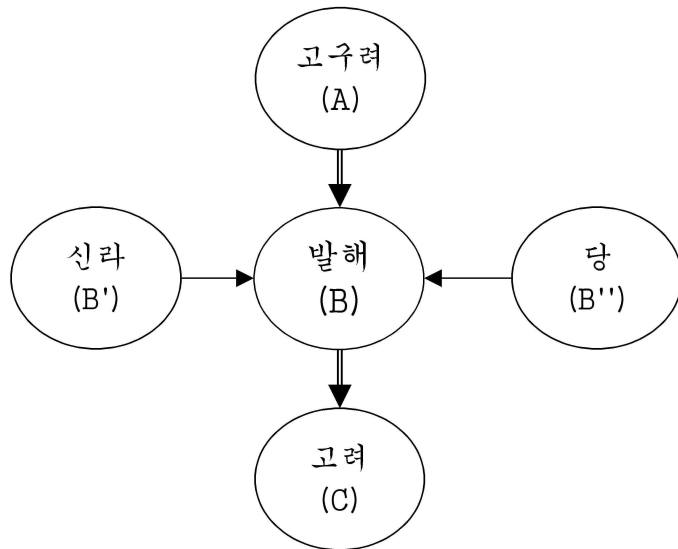
로, 발해의학의 연구를 통해 고유 의학의 전통과 실제적인 모습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발해 의학의 면모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먼저 통시적인 관점과 공시적인 관점을 통해 드러나는 발해의학의 기본적인 수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고유의 의학 전통이 발해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투영되어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발해의 의료제도 및 의학교육제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발해가 계승한 침구에 대한 고유의 전통과 특징을 통해 당시 발해의 침구학의 수준을 제시하겠다. 마지막으로 발해의 본초학에 관해서는 발해 산 약재에 대해 연구하였다.

本 論

1. 발해 의학의 概觀

발해에 관한 사료가 극히 부족하고, 그나마 대부분이 「新唐書」 등의 중국 사서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발해의 의학에 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명해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통시적인 관점과 공시적인 관점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연역적인 논리의 틀을 만들어 발해의학의 면모를 제시하였다. 즉, 발해의학이 갖는 대전제를 제시하고 이로 인해 발해의학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을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1> 발해의학의 통시적·공시적 관점을 표시한 논리적 계통도

통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대 순으로 계승관계에 있는 국가에는 그들만의 문화적 전통이 있다. 그러므로 한 발해를 중심으로 시대적인 흐름을 관찰하였을 때 어떤 전통이 고구려(A)와 고려(C)에 있다면, 발해(B)에는 당연히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구려(A)에는 없다가 고려(C)때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발해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거꾸로 고려(C)에는 없지만 고구려(A)에 존재했던 것은 발해(B)에도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 고구려와 고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의학적인 전통은 발해의학의 내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고구려에는 존재하였지만 고려에는 나타나지 않는 전통이 발해에는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증이 가능한 부분은 역시 발해의학으로 끌어올 수 있다. 또한 고려 초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의학적인 내용이 발해에서 전해진 것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발해의학의 특징으로 설정하도록 하겠다.

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문화권내에는 공통적인 문화가 존재하므로 주변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은 문화권내의 어느 국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발해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고유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잘 융화시키며 발전하였다. 발해의 이웃 국가로는 당·후기신라 등이 있는데 이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의학적 특징은 역시 발해에도 존재하였을 것이므로 이것을 발해의학의 기본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하겠다.

2. 고유 의학의 특징에서 본 발해의학

(1) 체질적 특성과 풍토를 극복하기 위한 의학 전통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는 타고난 체질과 살고 있는 환경과 기후 즉, 풍토(風土)다. 타고난 체질을 바탕으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의식주의 형태가 변화되어 왔으며, 이는 발생하는 질병의 양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민족의 대체적인 인종적 특징을 살펴보자면, 대부분이 북방계 몽골리안이다. 이로 인한 대표적인 특징은 출생 후 몽고반점이 생기는 것과 산모는 産後風이 잘 생기는 것이다. 이는 골반에 寒氣가 들었을 때 잘 나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²⁾ 이

²⁾ 몽고반점이나 産後風 모두 위치상으로 골반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醫書에서는 골반부위를 ‘腰以下’라고 표현하였다. 골반은 인체의 하부에 위치하므로 음양으로 구분하면 陰에 속하고 寒熱로 구분하면 寒으로 볼 수 있으며, 濕의 下流가 잘 일어난다. 이로 인해 下焦의 질환에는 주로 烏豆나 附子같은 뜨거운 약재와 水氣를 빼주는 약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왔다. 『金匱要略』에서 寒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當歸生薑羊肉湯이 婦人病의 치료에 사용되어왔던 것이나, 『傷寒論』에서 ‘大病差後 從腰以下 有水氣者 牡蠣澤瀉散主之’라 한 것이 그 근거가 된다. 또한 여성들의 생리통은 골반부위를 중심으로 발생하며, 보통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골반의 寒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몽고반점이나 산후풍은 체질적으로 골반 부위에 寒氣와 水氣가 들었을 때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

러한 특징을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은 전통 의식주문화에 잘 나타나 있다. 식생활 측면에서는 쭈과 미역을 먹는 것이고 주거문화에서는 온돌의 사용이 그것이다.

쭈은 『名醫別錄』에서 “쭈은 맛이 쓰고 성질은 약간 따뜻하며 독은 없다. 땀을 띠서 온갖 병을 치료하며 또한 달여서 사용할 수도 있다. 下痢와 吐血을 멎게 하고, 하부의 익창(蠱瘡)과 부인의 붕루를 치료하고, 陰氣를 길러주고, 肌肉이 나게 하고 풍한을 막아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식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³⁾ 단군 이래로 쭈을 사용해 온 것은 寒氣와 관련된 체질적인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해에서는 端午에 쭈떡을 해먹었고,⁴⁾ 고려에서는 3월에 쭈떡을 해먹는 풍속이 있었으며⁵⁾ 『東國歲時記』에도 이러한 풍속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체질적인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쭈을 오래전부터 널리 이해왔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산후에 미역국을 먹는 전통이다. 이는 미역으로 水氣를 빼내는 産後保養法으로 우리 고유의 산후조리문화이다. 『金匱要略』에서 ‘부종이 있는 모든 경우에 허리 이하에 부종이 있으면 마땅히 소변으로 나가게 한다.’고 하였으니,⁶⁾ 허리 이하에 水氣가 있는 것은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이 법도가 됨을 알 수 있다. 미역은 海藻라고 하며 『神農本草經』에서 ‘海藻는 성미가 苦寒하고…12가지 水腫을 내려 보낸다’고 하였다. 『傷寒論』 395條에 ‘병을 심하게 앓고 난 이후에 허리 이하로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牡蠣澤瀉散으로 주치한다’고 하였는데 牡蠣澤瀉散에 들어가는 약재가 海藻이다.⁷⁾ 그러므로 산후에 미역국을 먹는 전통은 미역의 효능과 水氣를 다스리는 법도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한 방법으로 보이며 일찍부터 이를 실생활에 응용하고 있었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을 주거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背山臨水이며 집을 만들 때 황토로 벽을 바르고 온돌을 놓았다. 이는 차가운 북서계절풍으로 인한 寒氣를 막아 몸에 寒濕이 배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온돌은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주거 문화유산으로, 기원에 관하여는 고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받는데,⁸⁾ 이를 통해 온돌이 고구려와 발

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名醫別錄』 “艾葉 味苦，微溫，無毒。主灸百病，可作煎，止下痢吐血，下部蠱瘡，婦人漏血，利陰氣，生肌肉，辟風寒，使人有子。…三月三日採，暴乾作煎，勿令見風。”

4) 『遼史』의 기록에 의하면 발해 사람들은 쭈떡(艾糕)을 즐겨 먹었다. 매년 5월 5일이면 쭈 잎을 뜯어 찹쌀과 섞어 떡을 만들어 먹었다. 한쪽은 단오절에 송편(粽子)을 먹는다. (방학봉, 『발해의 문화1』, 정토출판, 2005 p.190)

5) 『宋史·高麗傳』에 보면 고려에는 3월 3일(삼짇날)에 쭈떡을 해먹는 풍습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上巳日，以青艾染餅爲盤羞之冠，端午有鞦韆之戲”

6) 『金匱要略』 水氣病脈證并治 中 “諸有水者 腰以下腫 當利小便 腰以上腫 當發汗乃愈”

7) 진주표 편역, 『상한론용어사전』, 법민문화사, 2006, p.942

8) “고조선 시기의 유적인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을 세죽리의 한 집자리에서 돌을 두 줄로 놓아 고래뿔을 만들고 그 위에 구들장을 놓은 구들이 드러났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김준봉·리신호, 『온돌 그 찬란한 구들문화』, 청흥, 2006, p.74)

해를 거쳐 현재까지 우리 고유의 주거 문화로 전승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의학적인 면에서 본 온돌의 기능은 골반에 寒氣가 들지 않게 하며, 溫氣를 공급해주어 寒으로 기인한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면 火逆이⁹⁾ 생겨서 表에 열기가 생기고 열이 울체되어 발산되지 않아 오래되면 瘡瘍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는 治腫에 관한 고유한 의학이 따로 발달해왔다.¹⁰⁾

또 다른 체질적 특징으로는 七情으로 인해 胸膈에 氣의 鬱滯가 잘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질환은 ‘화병(火病)’이다. 미국정신과학회에서 ‘화병’을 ‘한국민속증후군’으로 분류한 것은 비교적 많은 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발생하고 병태가 독특하기 때문이다. 화병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七情으로 인해 胸膈에 氣가 鬱結된 것이 化火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질적인 특징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콩을 발효시켜 만든 된장이나 청국장 등의 음식을 즐겨 먹어왔다.

된장이나 청국장의 의의는 豆醬을 만드는 재료인 豆豉에 대해 살펴보면 알 수 있다. 『名醫別錄』에서는 豆豉의 효능에 대해 흥격이 煩躁하고 滿悶한 것을 다스린다고 하였고,¹¹⁾ 『傷寒論』에서는 清宣鬱熱, 除煩하거나,¹²⁾ 宜鬱調中하는¹³⁾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豆豉의 효능으로 보아 豆醬을 만들어 먹는 식생활문화는 흥격에 氣의 울체가 잘 일어나는 체질적인 특징을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발해에도 이러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다. 『遼史』의 기록에 의하면 발해 사람들은 쭉떡(艾糕)을 즐겨 먹었다. 매년 5월 5일(단오날)이면 쭉잎을 뜯어 찹쌀과 섞어 떡을 만들어 먹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한족(漢族)이 이 날 송편(粽子)을 만들어 먹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¹⁴⁾ 그리고 발해의 왕궁과 기타 유적지에서 온돌이 발견되어 발해인이 온돌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新唐書』에 기록된 ‘발해의 풍속에 귀하게 여기는 것’¹⁵⁾ 가운데 ‘昆布’와 ‘豉’가 있다. 이를 통해 발해가 민족 고유의 의학적 특징을 계승하였다는

9) 『傷寒論』「便太陽病脈證并治」 116조 “...脈浮 宜以汗解 用火灸之 邪無從出 因火而盛 病從腰以下 必重而痺 名火逆也...”(맥이 浮하면 마땅히 발한시켜서 풀어하는데, 불을 때거나 뜸을 때버리면 사기가 나갈 곳이 없으니 火氣로 인해 치성해지게 된다. 병이 나면 허리 아래로 반드시 무겁고 저리게 되는데 이를 火逆이라 한다.)

10) 진주표 편역, 『상한론용어사전』, 법인문화사, 2006, p.3

11) 『名醫別錄』“主治傷寒, 頭痛, 寒熱, 瘴氣, 惡毒, 煩躁, 滿悶, 虛勞, 喘吸, 兩腳寒冷, 又殺六畜胎子, 諸毒”(唐慎微,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南天書局有限公司, p.493)

12) 『傷寒論』 76조 “發汗後 水藥不入口 爲逆 若更發汗 必吐下不止 發汗吐下後 虛煩不得眠 若劇者 必反復顛倒 心中懊惱 梔子豉湯主之...”

13) 『傷寒論』 355조 病人手足厥冷 脈乍緊者 邪結在胸中 心下滿而煩 飢不能食者 病在胸中 當須吐之 宜瓜蒂散

14) 방학봉, 『발해의 문화1』, 정토출판, 2005 p.190

15) 『新唐書』 권219 列傳 第144 「渤海傳」 “俗所貴者 曰太白山之菟 南海之昆布 柵城之豉 扶餘之鹿 鄭頡之豕 率賁之馬 顯州之布 沃州之綿 龍州之紬 位城之鐵 盧城之稻 湄沱湖之鯽 果有九都之李 樂游之梨”(풍속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태백산의 토사자, 남해의 곤포, 책성의 두시, 부여의 사슴, 막힐의 돼지, 솔빈의 말, 현주의 배, 옥주의 습, 음주의 비단, 위성의 철, 노성의 버, 미타호의 봉어, 과일로는 구도의 오얏과 낙유의 배가 있다.)

것을 알 수 있다.

(2) 治腫의학의 발달

동방지역의 사람들이 癰瘍의 병이 잘 생기는 것은 『素問·異法方宜論』¹⁶⁾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식생활문화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주거 문화인 온돌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온돌에 장점에 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졌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온돌이 이러한 긍정적인 작용만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통 가옥의 아랫목의 온도는 바닥 지로 붙인 한지가 누렇게 익을 정도로 온도가 높았는데, 맨살을 그대로 오래 접촉시키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온도였다. 이러한 온돌바닥에 지나치게 오래 접촉함으로 인해 癰瘍의 질병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고 본다.

허준은 『東醫寶鑑·癰疽門』에서 응저의 원인에 대해 丹溪의 견해를 이용하여, 火熱로 인해 피부와 혈액이 손상되어 癰疽가 생긴다고 보았으며,¹⁷⁾ 小兒門의 小兒保護法에서도, “무릇 갓난아이의 피부는 아직 實하지 못하므로 옷을 두껍게 입혀 너무 덥게 해주면 피부와 혈액을 손상시켜 瘡瘍이 생긴다.”¹⁸⁾고 하였다. 이를 통해 온돌을 이용한 주거문화로 인해 癰疽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1에서 언급했던 대로 治腫의학에 관한 독자적인 전통이 고조선시대의 砭石術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조선에서 비롯된 이러한 전통은 고구려와 발해로 전승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와 발해에서도 癰疽를 치료하는 治腫의학이 발달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劉涓子方』은 5세기말에 편찬된 외과전문서적으로 癰疽와 瘡瘍 등의 질환에 대해 다루었으며 후대의 외과학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고 한국이나 일본의 외과학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 책이다.¹⁹⁾ 『劉涓子方』에서는 癰瘍의 치료에 膏藥을 많이 사용하였는데,²⁰⁾ 이러한 질환에 膏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漢代 이전부터이며, 唐宋이래로 膏藥의 발전은 煉丹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²¹⁾ 시기적으로 보나 필요성으로

16) 『素問·異法方宜論』 “東方之域 天地之所始生也 魚塩之地 海濱傍水 其民食魚而嗜鹹 皆安其處 美其食 魚者使人熱中 塩者勝血 故其民皆黑色疏理 其病皆爲癰瘍 其治宜砭石 故砭石者 亦從東方來.”

17) “氣血이 火熱의 사기를 만나 울체되면 津液이 화열의 사기가 끓어오르는 성질 때문에 粘稠해져 痰이나 飲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오래되어 脈 속으로 스며들어가게 되면 血이 그것 때문에 혼탁하게 되는데, 이것이 陰이 陽에 의해 지체되어 ‘癰’이 되는 것이다. 또 血이 사기를 만나 울체되면 순행하는 도로가 막혀서 넘쳐흐르거나 혹은 막히게 되는 바 이것이 오래되면 脈 밖으로 넘쳐흐르게 되어 氣가 이것 때문에 어지럽게 되는데, 이것이 陽이 陰에 의해 지체되어 ‘疽’가 되는 것이다.”(동의문헌연구실 편역, 『신편·대역 동의보감』, 법인문화사, 2005, pp.2625~2626)

18) 동의문헌연구실 편역, 『신편·대역 동의보감』, 법인문화사, 2005, p.3081 (凡嬰兒肌膚未實, 若厚衣過煖, 則傷皮膚, 損血脈, 發瘡瘍.)

19)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下冊』,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996

20) 『劉涓子鬼遺方』의 147개의 전체 처방 중 절반정도인 73개의 처방이 膏藥인 점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외과질환에 대해 다룬 卷5의 처방 대부분이 膏藥이라는 점이 이러한 점을 더욱 부각시켜준다.

보나 『劉涓子方』이 고구려에서도 널리 보급되었을 것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오는 전래의 仙道術을 바탕으로 고구려에서 煉丹術, 鍊金術, 養生術이 발달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고구려에 膏藥에 관한 전통이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고구려에 이르러서는 砭石術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膏藥을 만들어서 癰瘍의 치료에 사용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治腫에 관한 전통은 고구려에서 발해를 거쳐 후대로 전해졌다. 발해는 고구려의 땅에 세워졌고 그 주민들도 대부분이 고구려계이므로 풍토와 체질적인 특징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발해에서도 온돌을 사용했음이 증명 되었으니 발해에도 癰瘍의 질병이 많이 생겼을 것이고 이의 치료를 위해 고구려의 治腫에 관한 전통을 이어받아 발전시켰을 것이다. 그러므로 발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劉涓子方』을 교육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고려로 전해져 『劉涓子方』과 『瘡疽論』을 다른 중요 경전과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할 수 있었으며 다시 조선으로 전해졌다. 세종 때의 기록에 癰癰醫, 治腫醫 같은 외과분야의 전문의의 명칭이 남아 있으며, 세조 때에는 任元濬의 『瘡疹集』이 醫員取才講書로 채택되었다.²²⁾ 명종 때는 우리나라 최초의 治腫 전문의서²³⁾로 평가받는 任彦國의 『治腫秘方』이 나오고 후에 任彦國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治腫指南』이 편찬되기에 이르렀다. 선조 때에는 癰腫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治腫廳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治腫에 관한 전통이 단절되지 않고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발해가 이러한 전통을 고려에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3) 鄉藥의 사용

고유 의학의 세 번째 특징으로 鄉藥²⁴⁾의 사용을 들 수 있다. ‘鄉藥’은 우리나라의 산과 들, 바다와 강에서 나는 모든 약재에 대한 총칭으로, 중국산 약재인 ‘漢藥’이나 ‘唐材’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藥名이다.²⁵⁾ 향약의 사용에 관한 역사에 관한 것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향약에 관한 전통이 어떠한 이유에서 생겼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첫째, 우리나라는 동방에 위치하여 중국과 풍토가 다르기 때문이다.

『素問·異法方宜論』에서 지역에 따라 풍토가 다르고 산물이 다르며 음식이 달라서 발생

21) 孟憲武 主編, 『中國膏藥藥膏糝藥全書』,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6, p.3

22) 醫員取才講書란 의사고시과목이다. 세조 10년에 예조에서 새로 정한 의원 취재(取才) 때의 강(講)의 서(醫書)를 건의 하면서, 정·종3품은 『素問』을, 정·종4품은 『張子和方』을, 정·종5품은 『小兒藥證直訣』, 『瘡疹集』을, 정·종6품은 『傷寒類書』·『外科精要』를, 정·종7품은 『婦人大全』·『產書』를, 정·종8품은 『直指方』을, 정·종9품 이하 생도(生徒)에 이르기까지는 『銅人經』을講하게 하고, 『大全』·『本草』·『脈經』은 모두講하게 하자고 하였다.

23) 한의학 지식 정보자원 웹 서비스(<http://jisik.kiom.re.kr>)의 『治腫秘方』해제에서 인용

24) 강연석은 그의 논문에서 “향약은 각 시기에 따라 한민족의 국가 영토 안에서 생산되거나 재배가능한 약재”로 정의한 바 있다.(강연석, 「鄉藥集成方の 鄉藥醫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p.4)

25) 홍순원, 『조선보건사』, 청년세대, 1989, p.113

하는 질병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치법이 다름을 논한 바 있다. 조선 후기의 趙廷俊²⁶⁾은 『及幼方·東方六氣論』에서 ‘우리나라의 기세와 풍토와 중국과 달라서 발생하는 질병이 다르므로 치법과 처방이 달라져야 함’을 주장하였고,²⁷⁾ 우리나라 최초의 본초전문서적으로 보이는 『本草精華』²⁸⁾에서도 ‘方民’을 두어 지역에 따른 사람과 발생하는 질병에 차이를 논하였다.²⁹⁾ 약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유의 풍토와 체질에 맞추어 사용하는 오랜 전통은 조선후기 李濟馬가 ‘四象醫學’이라는 독자적인 의학을 창시해내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둘째, 그 땅에서 나는 약재가 그 지역 사람들의 질병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자생식물은 그 지역의 풍토를 이겨내고 자라난 것이므로, 그 지역의 풍토로 인한 질병의 치료에 가장 적합하다. 이를 ‘宜土性’³⁰⁾이라고 하며 현대의 身土不二的 개념과도 상통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체질과 풍토에 맞는 우리의 약재 즉 鄉藥을 중시하였다.

셋째,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이다.

『東醫寶鑑』序文에서는 “궁벽한 마을에는 의약이 없어 요절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는 향약이 많이 생산되는데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한다. 옳게 분류되되 향명을 병기하여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고,³¹⁾ 集例에서는 “唐藥과 鄉藥을 함께 기재했는데, 鄉藥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름과 산지 및 채취하는 시기와 말리는 법을 써놓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여, 멀리서 구하고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폐단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³²⁾

그러므로 鄉藥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고려시대 이전에도 당연히 존재하였

26) 趙廷俊은 조선 영조 때 사람으로, 영조 25년(1749년) 80세때 소아과 전문서인 『及幼方』 13권을 저술하였다.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韓國醫史文獻編』,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94)

27) 조미숙, 「趙廷俊의 及幼方に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04

28) 현재까지의 보고로는 우리나라에서 『本草精華』 이전에 저술된 本草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고유의 本草書가 간행된 적이 없다. 『鄉藥救急方』이나 『鄉藥集成方』은 本草書라기 보다는 方書라고 보아야한다.

29) 한국의학대계 권41, 『본초정화』, 여강출판사, 1988, 서울 p.35~36

30) 중국의 약재에 대한 선호도가 지나쳐 모든 질병을 중국산 약재로 치료하려고 하는 사회풍조가 심화되자, 11세기 중반부터 의업을 담당하는 일각에서 ‘고려에서 생긴 질병은 고려에서 나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는 宜土性を 강조하게 되었다. (김기욱 외 공저, 『韓醫學 通史』, 대성의학사, 2006, p.149)

31) 窮村僻巷 無醫藥而夭折者 多, 我國鄉藥多產 而人不能知爾 宜分類並書鄉名 使民易知. (허준 저 동의문헌 연구실 편역, 『신편·대역 동의보감』, 법인문화사, 2005, pp.31~32)

32) 且書唐藥·鄉藥, 鄉藥則書鄉名與產地及採取時月·陰陽乾正之法, 可易備用, 而無遠求難得之弊矣. (허준 저 동의문헌연구실 편역, 『신편·대역 동의보감』, 법인문화사, 2005, pp.34~35)''

을 것이며, 이러한 전통은 고유 의학이 생겨나면서부터라고 보아야 한다.³³⁾ 그러므로 발해에서도 자국산 약재로 질병을 치료하였을 것이다.

(4) 의학교육에 있어서 經典을 중시함

고유 의학의 특징 네 번째는 ‘의학 교육에 있어서 經典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다.

삼국시대 이래로 의학교육기관에서 가르친 과목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시대와 그 이전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후기신라의 ‘醫學’에서 『素問』, 『靈樞』, 『難經』, 『本草經』, 『甲乙經』, 『脈經』, 『明堂經』을 가르쳤다고 한다. 고려의 醫卜科의 시험과목은 『素問經』, 『本草經』, 『甲乙經』, 『鍼經』, 『灸經』, 『脉經』, 『明堂經』, 『難經』, 『劉涓子方』, 『瘡疽論』 등의 과목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의학교육시 경전을 중시하는 전통이 전승되어 다른 최신의 의서들과 함께 『素問』, 『難經』, 『本草經』, 『鍼灸經』 등의 경전을 교육하여 조선시대까지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經典’이란 ‘변하지 않는 법칙과 도리’ 즉, 法度를 의미하는데 이는 학문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이다. 의학에 있어서의 법도는 시대와 자연환경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經典들은 현재까지도 중요시되고 있다. 시대마다 기후가 다르고 전쟁이나 가뭄 등의 재해나 식생활의 변화 같은 모든 것들이 인체에 영향을 주어 발생하는 질병의 양상에도 변화가 생기므로 항상 그 시대에 적합한 醫論을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宜於時 適於用’이라 하며 이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다.

또한 『黃帝內經』을 비롯한 經典을 공부해왔다는 것은 한의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嫡子라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서가 들어왔을 때 이를 무작정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적합한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經典을 공부함으로 인해 한의학의 원리에 통달하였기 때문이다.

발해에도 경전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다. 거란의 태조가 발해를 멸망시킨 뒤 발해의 땅에 동란국(東丹國)을 세우고 장자 ‘倍’를 人皇王에 책립하여 다스리게 하였는데, 人皇王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음양에 통하고 음률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의약과 침뜸에도 정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인황왕이 동란국을 다스리면서 해동성국이라 불리웠던 발해의 훌륭한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 것은 당연하며³⁴⁾, 특히 의학에 관심이 깊었

³³⁾ 질병은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발생하며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약재와 약물지식에 의존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 약을 골라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터이고 필요한 때에 시의적절하게 사용하기 힘들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계층이 중국산 약재들을 쉽게 구해서 사용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唐材와 구분하여 鄉藥이란 말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 선조들은 약물에 대한 독자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던 만큼 발해의 의학에 관해서도 많이 연구하였을 것이다. 인황왕은 ‘醫巫閭山’에 자신의 서고를 만들고 책들을 모았는데³⁵⁾, 훗날 그가 후당으로 망명할 때에 소유하고 있던 수만 권의 책 중 수천 권을 가져갔는데 그 책들은 당시 중국에서도 볼 수 없는 異書와 醫經이었다고 한다.³⁶⁾ 그 중 많은 수가 발해가 간직하고 있었던 우리 고유의 의서들이었을 것이다. 중국에 없는 의학경전(醫經)이 많이 존재했다는 것은 발해에 고유의 의학경전들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며, 이를 잘 전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발해에도 經典을 중시하는 고유 의학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발해 의학의 면모

3-1 발해의 의료제도 및 의학교육제도

발해의 의료제도가나 관직, 그리고 의학교육제도에 관한 기록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 그러나 발해의 중앙통치기구와 정치제도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당과 후기신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설립된 것을 미루어 볼 때, 발해의 의료제도 또한 그러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당과 후기신라 고구려와 고려를 비교하여 <표1>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발해의 의료제도와 의학교육에 대해 고찰하였다.

<표1> 당, 후기신라, 고구려, 고려의 의료제도 및 의학교육

	의료제도	의학교육제도
당	尙藥局, 藥藏局, 太醫署 및 지방의료기구	太醫署에서 『本草』, 『甲乙』, 『脈經』을 가르쳤다.
후기신라	藥典, 侍博士	醫學에서 『本草經』, 『甲乙經』, 『素問經』, 『針經』, 『脉經』, 『明堂經』, 『難經』을 가르쳤다.
고구려	侍醫, 고국천왕 16년(194년)에 鰥寡孤獨과 老病者들을 內外所司에 명하여 구휼토록 지시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이때부터 進대법을 실시한 바 있다.	후기신라에 醫學이나, 唐의 太醫署에서 국가에서 교육시켰던 것으로 보아 고구려에도 비슷한 교육기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	太醫監, 尙藥局, 尙食局 및 濟危寶	『素問經』, 『本草經』, 『甲乙經』, 『鍼經』, 『灸經』, 『脉經』, 『明堂經』, 『難經』, 『劉涓子方』, 『瘡疽論』 등 10개 과목 ³⁷⁾

34) 서병국, 『발해국과 유민의 역사』, 대전대학교 출판부, 2000, p.144

35) 인황왕은 사냥과 수렵을 좋아하지 않고 독서를 즐겨 東丹國에 있을 때 중국의 幽州에 사람을 보내어 금 은보화로 구입한 수만 권의 서적을 醫巫閭山 위에 望海堂이라는 서당을 지어 비치하였다.“好讀書 不喜射獵 初在東丹時 令人齎金寶私入幽州市書載 以自隨凡數萬卷 置書堂於醫巫閭山上 扁曰望海堂”(『契丹國志』 권14, 諸王傳, 東丹王)

36) 『冊府元龜』 권997 技術

“後唐 契丹東丹王 歸中國明宗 賜姓名贊華尤 好畫及燒金煉汞之術 始泛海歸朝載書數千卷 自隨樞密使趙延壽 每求假異書及醫經 皆中國無者 永康王兀欲即東丹之長子也 後改名聿 好行仁惠善丹青 尤精飲藥”

발해는 백제의 藥部 신라의 藥典과 같은 의료기관이 존재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제도는 고구려에서 전해졌을 것으로 본다. 또한 고구려처럼 백성들을 위한 救療기관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당제를 참고하여서 醫政제도의 정비가 이전 시대보다 더욱 잘되었을 것이다. 의학교육에 관해서는 경전을 중시하는 고유의 전통이 있었던 것을 보건대 발해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전을 중요시하여 교육하였을 것이므로 최소한 후기신라에서 교육하였던 7개 과목은 포함되었을 것이다. 또한 발해의 강역이 고조선이나 고구려와 크게 다르지 않고, 발해에도 온돌 문화가 있었으므로 癰瘍 등의 외과질환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며 이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였을 것이므로 『劉涓子方』이나 『瘡疽論』을 교육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표2> 발해의 의료제도 및 의학교육제도

	의료제도	의학교육제도
발해	고구려의 侍醫같은 관직과 백제의 藥部같은 기관이 있었을 것이며, 고구려처럼 백성을 구휼하는 기관과 제도도 있었을 것이다.	발해는 후기신라에 醫學이나, 唐의 太醫署와 같은 의학교육기관이 있었을 것이며, 후기신라의 7개 과목은 기본으로 하고 『劉涓子方』, 『瘡疽論』도 가르쳤을 것으로 보인다.

발해의 의료제도나 관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아직까지는 발견된 것이 없지만, 발해의 醫師에 관한 기록이 太政官牒³⁸⁾에 남아있다. 『類聚三代格』의 太政官牒에 대한 기록 중 한 牒에서 渤海使 구성원을 기록하는 부분에서 醫師라는 명칭이 있다.³⁹⁾ 사절단의 旅程이 보통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긴 시간이므로 중간에 病人이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를 해야 했기 때문에 사절단에는 醫師가 당연히 필요하였을 것이다.

문화는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속성이 있다. 당시 일본은 渤海使

37) 김홍균, 『高麗時代 醫學史觀 叱正(1)』, 한국한의학연구원은문집 Vol.9/No.1(통권10호), 2003 pp.17~32

38) 渤海使가 일본에 도착하면 발해의 황제가 일본의 천황에게 보내는 王啓와 중대성에서 태정관에 보내는 中臺省牒의 내용을 筆寫한 啓案과 牒案을 당시 일본의 행정의 최고기관인 太政官의 관리에게 진한다. 太政官에서는 사절을 파견하는 뜻을 담은 中臺省牒을 전달받고 발해의 사신에게 보낸 뜻을 받았다는 확인 문서로 返牒을 보냈는데 이것이 太政官牒이다.(임상선 편역, 『渤海史의 理解』, 신서원, 1996, pp.309~331)

39) 사절단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大使 副使 判官 錄事 譯語 史生 天文生 醫師 首領 楯工 등이다. 『類聚三代格』 卷18 (『新訂增補國史大系』, 吉川弘文館, 1972, pp.571~572)
 天長元年六月□日
 太政官府一應苑客徒供給事大使 副使 日各二束五把判官 錄事 日各二束 史生 譯語 醫師 天文生 日各一束五把 首領已下 日各一束三把 右得但馬國解稱 渤海使 政堂左允王文矩一百人 去年十二月二十九日到着 仍遣國博士正八位下林朝臣遠雄 勘事由 并問 違期之過 文矩等申云 爲言 大唐淄青節度康志曠交通之事 入觀天□ 違期之程… (後略)

나 遣渤海使 그리고 발해에 파견한 유학생들을 통해서 渤海의 先進文化를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渤海使節團에 극진한 대접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발해에 유학생과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러므로 사절단에 포함된 醫師는 사절단의 치료뿐 아니라 발해의 우수한 의학을 일본에 전수해주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⁴⁰⁾

이와 비슷한 모습을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파견된 조선통신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선통신사들에게 과거 渤海使에 못지않은 일본의 극진한 대접이 이어졌고, 일본은 이들을 통해서 선진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조선통신사의 수행관원 중의 醫官들을 만나서 선진 의학을 배우기 위해 애를 썼으며, 평소 궁금했던 의학에 관한 질문을 하였던 기록이 있다.⁴¹⁾ 이는 양국 간의 의학의 수준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조선의 의학 수준을 알 수 있다. 발해사절단의 醫師 역시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선진 의학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일본 의사들에게 발해의 의사들은 발해 의학을 전수해주어 일본 의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을 것이다.

3-2 발해의 침구학

우리 민족에게는 고조선 이래로 내려온 鍼灸에 대한 전통이 있으므로, 발해에도 당연히 이러한 전통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침의 기원과 제조에 관한 전통과 침술에 대한 몇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여 발해의 침구학의 수준을 가늠해보도록 하겠다.

(1) 鍼의 제조에 관한 고유의 技術

『素問·異法方宜論』의 砭石과 『山海經』의 「東山經」과 「東次二經」의 箴石에 관한 기록을 근거로 하여 鍼은 동방에서 기원되었으며, 시기적으로는 고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를 침의 동방기원설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鍼術이 우리 민족에게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초기에는 石鍼이나 骨鍼을 사용하였을 것이나, 문명이 발달로 청동기시대로 넘어가면서 침의 재료에도 변화가 생겨 금속침을 사용하게 되었다.

침은 피부를 뚫고 인체 내부로 들어오므로 몇 가지 기본요건을 충족시켜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즉, 독성이나 거부반응이 없는 인체에 무해한 재료여야 하며, 일정한 경도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계적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⁴²⁾ 이러한 조건에 맞는 재료가 있으니 바로 高麗銅이다.

『朝鮮賦』⁴³⁾에 우리나라의 銅에 관해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 금속 중에서 생산되는 바가 가장 많아서 구하기 쉬운 것은 銅만한 것이 없다.”⁴⁴⁾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석에서

40) 최재석, 『統一新羅 · 渤海와 日本의 關係』, 일지사, 1993, pp.348~349, pp.382~384

41) 차응석, 「桑韓醫談과 韓日醫學文化交流」, 한국의사학회지 17권 2호, 2004, pp.73-98

42) 백용현 외 4인, 「침 금속재료에 대한 생체적합성 연구-화학적 조성 및 기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 침구학회지, Vol.21, No.4, 2004, p.160

43) 명나라 사람 董越이 1488년에 조선에 사신으로 와서 보고들은 것을 賦로 적은 것

“조선에서 나는 銅은 가장 견고하고 붉으며 식기와 수저 등을 이것으로 만드는데 중국에서 高麗銅이라고 부르는 그것이다.”⁴⁵⁾라고 하였다. 식기나 수저 같이 음식이나 입에 닿는 것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만족시키는 것이 高麗銅이었던 것이다. 高麗銅은 고구려, 백제 이래로 우리 민족이 애용하였던 생황(笙簧)이라는 악기에 입을 대고 불어서 떨림을 만들어 소리를 내는 부분인 황(簧, reed)을 만드는데도 사용되었다.⁴⁶⁾ 그러므로 鍼을 만들 때 高麗銅을 사용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숭실대학교 박물관에는 고조선 시기의 청동침의 주물틀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료용 침을 만들던 주물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⁴⁷⁾ 고조선의 이러한 금속기술은 고구려에서 계승발전시켰다. 고구려의 연금술은 陶弘景의 『本草經集註』의 金屑의 조문을 보더라도 세계적인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⁴⁸⁾ 그 연원은 고조선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銅이외에도 금, 은, 철을 이용해서도 침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⁴⁹⁾

발해는 양질의 銅을 생산하고 이를 당에 수출하였다고 한다. 『冊府元龜』 外臣部에 보면 발해와 신라가 당나라에 熟銅을 수출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⁵⁰⁾ 발해가 당에 熟銅을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발해의 銅이 중국보다 우수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고조선 이래로 중국에서 인정받은 高麗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발해의 熟銅 같은 양질의 銅이 널리 생산된 것은 명나라 시대부터라고 하니,⁵¹⁾ 발해의 熟銅은 당시 중국에서 귀한 품목으로 대접받았을 것이다.

또한 남북국시대에 우수한 침을 생산했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기록이 있다. 후기신라에서 당고종 咸淳 3년(672년)에 문무왕이 鍼 400개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으며,⁵²⁾ 경문왕 9년(869년)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함께 보낸 물품 중에 ‘슬슬전금침통(瑟瑟金針筒) 30구, 금화은침통(金花銀針筒) 30구, 침 1500개’를 겸하여 進奉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⁵³⁾ 고구려에 우수한 가공기술이 있었고 후기신라에서도 鍼을 당나라에 수출할 정도

44) 『朝鮮賦』 “五金莫究所產最多者銅”

45) “朝鮮地產銅，最堅而赤，食器匙箸，皆以此爲之，卽華所謂高麗銅也。”

46) 『續文獻通考』의 笙에 관한 기록을 보면, “笙簧은 반드시 高麗銅으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47) 윤내현, 『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4, p.738

48) 김두중, 『한국의학사』, 探求堂, 1981, pp.45~46

49) 일본의 정창원의 소장품의 항목에 보면 남북국시대에 만들어진 은침 1쌍, 철침 1쌍, 별도의 은침, 동침, 철침 함께 7개가 있다고 한다.

50) 『冊府元龜』 권999 外臣部 互市

“개성 원년(836년) 6월 치청절도사가 주청문을 올렸다. ‘신라 발해 등이 속동을 수출하려 하는데 이를 금지하지 말아 줄 것을 바랍니다.’ 그 달 경조부에서도 주청문이 올라왔다. ‘건중 원년(780년) 10월 6일 칙서를 내렸다.’ 錦罽 綾羅 縠繡 織成 細紬 絲布 龍牛尾 眞珠 銀銅 鐵奴婢 등은 모든 번(주변국가)과 무역해서는 안된다.” (開成元年六月 淄青節度使奏新羅渤海 將到熟銅 請不禁斷 是月京兆府奏准 建中元年十月六日 勅諸錦罽 綾羅 縠繡 織成 細紬 絲布 龍牛尾 眞珠 銀銅 鐵奴婢 等 並不得與諸蕃互市)

51) 서병국, 『발해사 3권-발해의 경제』, 한국학술정보(주), 2006, p32

52) 馬伯英 高晞 洪中立 著 鄭遇悅 譯, 『中外醫學文化交流史』, 전파출판사, 1997

53)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第11 景文王 條

“九年秋七月，遣王子蘇判<金胤>等入<唐>謝恩，…瑟瑟金針筒三十具，金花銀針筒三十具，針一千五百。”

였으니, 이를 통해 발해에도 침의 제조에 관해 뛰어났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발해는 高麗銅과 우수한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인체에 무해한 침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2) 발해의 鍼術

발해의 침구학에 관한 기록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어서, 고구려의 뛰어난 침술과 후기신라의 침구학의 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겠다.

『西陽雜俎』 7卷 「醫」⁵⁴⁾문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魏나라 때 高句麗의 객이 침을 잘 놓았다. 1촌 되는 머리카락을 취하여 10여 토막으로 끊어 이를 침으로 꿰어 연결시켰다. 그는 머리카락 가운데가 비었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재주가 묘하였다.”

머리카락 속이 비어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알고 있을 정도로 고구려의 의학 수준이 고명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준다. 또한 토막난 머리카락을 침을 이용하여 머리카락 가운데의 구멍을 꿰어 연결시킬 정도로 침을 잘 다루었으며, 그 정도로 가늘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니 고구려의 침술이 높은 수준이었을 논증해준다. 또한 『日本書紀』의 鞍作得志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고구려의 침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통을 계승한 발해의 침술 또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었음이 분명하다.

침구에 관한 유구한 전통은 침구 이론으로 나라와 국토의 질병을 치료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를 나말여초에 유행했던 비보설(裨補說)이라고 한다. 비보설은 道誥를 宗祖로 삼는데,⁵⁵⁾ 범해선사(梵海禪師)는 『東師列傳·道誥國師傳』에서 비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만약 병이 들어 위급할 경우 곧장 혈맥을 찾아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곧 병이 낫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천의 병도 역시 그러하니 절을 짓거나 불상을 세우거나 탑을 세우거나 부도를 세우면, 이것은 사람이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것과 같은지라, 이음하여 말하기를 비보(裨補)라고 한다.”⁵⁶⁾

즉, 국토를 인체와 같은 유기체적인 구조로 보고,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침구학의 補瀉의 원리를 이용하여 국토의 병을 치유하여 국가와 백성들의 안녕을 도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의학에서의 補瀉의 원리를 응용하여 국가의 건강과 안녕을 이루는 방편으로 비보의 개념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전을 중시한 전통으로 한의학

54) 『西陽雜俎』 7卷 「醫」 “魏時有句驪客 善用針 取寸髮 斬爲十餘段 以針貫取之 言髮中虛也 其妙如此”

55) 『燕山君日記』 1년 5월 28일 “且裨補之說, 實祖道誥”

56) 범해 撰 김운세 譯, 『東師列傳』, 廣濟院, 1992, 원문 pp.6~7

“人若有病急 卽尋血脈 或鍼或灸 則卽病愈 山川之病亦然 今我落點處 或建寺立佛立塔立浮圖 則如人之鍼灸 名曰裨補也”

에 대한 기초가 튼튼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도선은 신라에서 활동하던 승려였지만, 이와 같은 개념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발해에도 존재하였을 것이므로 당시 발해의 침구학의 수준 역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경전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다. 발해의 침구학 분야에서도 그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앞서 동란국의 인황왕의 기록을 통해 발해에 고유의 의학경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는데, 침구에 관한 유서 깊은 전통을 보더라도 발해에는 침구에 관한 고유의 의학경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3 발해의 본초학

발해에 고유의 본초서나 혹은 본초학을 교육하였다는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전을 중시하는 고유의 전통과, 주변국가인 당과 후기신라에서 『神農本草經』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아 발해에서도 『神農本草經』을 중심으로 본초를 가르쳤을 것으로 보이며, 약물에 대한 지식 또한 이를 기본으로 하여 발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풍토와 체질을 고려하여 약물을 사용하는 전통에 비추어보면, 중국과 풍토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므로 본초에 관한 고유의 지식이 있었을 것이다.

『新唐書渤海傳』에는 발해에서 나는 귀한 산물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풍속에서 귀하게 여긴 바는 태백산의 토사자, 남해의 곤포, 책성의 두시, 부여의 사슴, 막힐의 돼지, 솔빈의 말, 현주의 배, 옥주의 솜, 용주의 비단, 위성의 철, 노성의 벼, 미타호의 봉어, 구도의 오얏, 낙유의 배이다.⁵⁷⁾

이 가운데 본초와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태백산의 토사자(太白山之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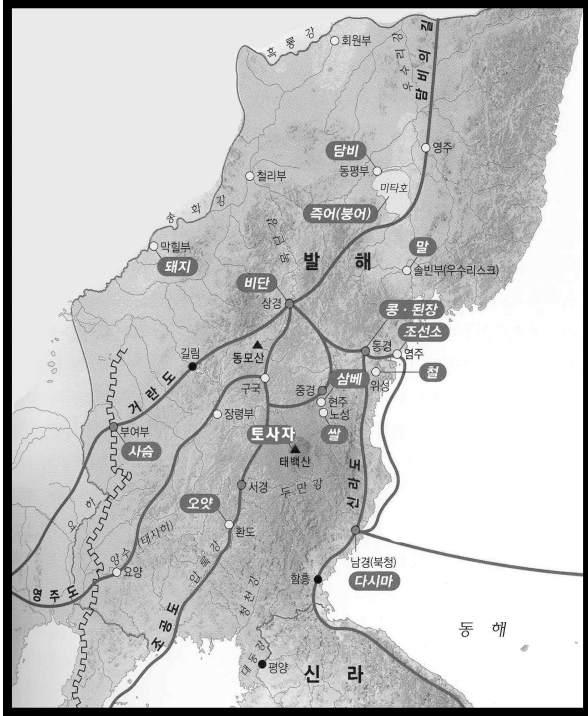
‘太白山之菟’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김육불(金毓黻)이⁵⁸⁾菟(새삼)를 兔(토끼)라고 한 이후로 그의 주장대로 ‘태백산의 흰토끼’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발해사 연구자들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太白山之菟’는 太白山의 菟絲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찍이 한치윤은 『海東釋史』에서 太白山의 菟絲子라고 한 바 있다.⁵⁹⁾ 안타깝게도 이러한 한치윤의 견

57) 俗所貴者曰, 太白山之菟 南海之昆布, 柵城之鼓, 扶餘之鹿, 鄭頡之豕, 率賁之馬, 顯州之布, 沃州之綿, 龍州之紬, 位城之鐵, 盧城之稻, 湄沱湖之鰱, 果有九都之李, 樂游之梨

58) 김육불은 중국의 발해사 연구의 선구자이자 권위자로, 그의 저서 『渤海國志長編』(1934)은 발해사에 대한 1차 사료를 총망라 정리하여, 발해사 연구의 위대한 금자탑으로 평가 받고 있다

59) 고구려연구재단, 『발해사 자료집 上』, 고구려연구재단, 2004, p263 (한치윤, 『海東釋史』, 卷26 - 草類)

해는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이어지지 못하였다. 최근에 菟를 토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몇몇 학자들에 의해 나왔다. 중국의 趙評春은 『太白山之菟應爲東北虎辨』에서 菟를 토끼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東北虎라고 주장하였으며, 정진헌은 菟를 새삼(菟絲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⁰⁾



<그림2> 발해의 대표적인 産物 - 아틀라스 한국사 p.59

白兔를 올려놓았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는다. 이에 대한 논리는 趙評春도 위에서 언급한 그의 논문에서 제기한 바가 있다.

넷째, 실제로 태백산 일대에서 菟絲子가 났다.

『名醫別錄』에서 菟絲子是 朝鮮의 산과 냇가에서 난다고 하였고, 『世宗實錄地理志』에 함경도의 특산물에 菟絲子가 기록되어 있는 것⁶¹⁾ 또한 이러한 점을 뒷받침 해준다.

다섯째, 중국의 菟絲子보다 발해의 菟絲子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 것이다. 『朝鮮王朝實錄 中宗實錄』에 보면 중국에서 온 사신이 ‘朝鮮菟絲子가 좋다고 하니 구해달라’⁶²⁾고 했던 기사 나오는데 이를 미루어 볼 때 조선시대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菟絲

菟에 대한 해석은 菟絲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글자가 兎가 아니라 菟이기 때문이다. 토끼라면 兎이 菟라고 기록할 필요가 없다.

둘째, 『新唐書』나 『渤海考』의 본문에서의 순서상 식물류로 보는 것이 맞다.

처음에 식물류로 볼 수 있는 菟 昆布 豉가 나란히 나오며 그 뒤의 産物도 대체적으로 동물, 광물, 천 등의 종류에 맞게 분류하여 적었다.

셋째, ‘발해에서 귀하게 여기는 바’의 첫 번째 항목으로 중국대륙 어느 곳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60) 정진헌, 『발해고』, 서해문집, 2006, p.143

61) 김두중, 『韓國醫學史』, 탐구당, 1981, p.214

62) 『中宗實錄』 中宗37년 2월 18일 己巳

“또, 진위사(陳慰使) 행차(行次)가 돌아왔는데 ‘각로(閣老) 하언(夏言)이 조선(朝鮮)의 토사자(菟絲子)가 좋다고 하면서 사람을 시켜 구득해야겠다고 했다.’고 한다. 예조(禮曹)는 이미 이러한 뜻을 알고 있

子を 좋은 것이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太白山之菟’는 太白山의 菟絲子로 보아야 한다.

나. 남해의 다시마 (南海之昆布)

남해부는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의 북한의 함경도, 강원도 북부 지역을 포괄하는 동해안 지역이다. 남해부의 곤포가 유명한 이유는 곤포의 식생학적 특성과 관련이 깊다.

곤포는 다시마를 지칭하는데, 다시마는 생물학적으로 갈조류의 한 종류이며, 미역은 다시마의 일종이다. 다시마는 따뜻한 바다에서는 살 수 없고, 한류에서만 난다⁶³⁾. 동북아시아의 해류를 보면 한반도 동해와(북한 한류, 연안류) 일본의 북해도 해역만 寒海로 볼 수 있다. 나머지는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와 그 가지들이다. 그러므로 다시마나 미역은 발해의 강역에서만 구할 수 있다.⁶⁴⁾ 이런 생태학적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으므로,⁶⁵⁾ 昆布가 고려시대까지 중요한 교역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의 昆布에 대한 도홍경(陶弘景)의 注에서 “昆布는 지금은 高麗에서만 난다”고 하였으니,⁶⁶⁾ 이를 뒷받침 해주는 좋은 증거라 할 수 있겠다. 또한 『世宗實錄地理志』에 보면 함경도 지방의 土產貢品으로 昆布와 海藻가 있는데,⁶⁷⁾ 특히 昆布는 다른 道の 土產貢品이나 生産藥材나 種養藥材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함경도 지방에서만 昆布가 나으며 중앙정부에 공납하는 품목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昆布의 의의는 우리 민족의 체질적 특성과 관련이 깊다. 본론 2-1에서 언급했던 대로 북방계 몽골리안들은 산후조리에 미역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왔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풍속은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는 것이다. 미역을 이용해서 몸의 붓기를 빼내는 것은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풍속이다.

을 것이다. 그러나 단독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있을 것인데, 중국의 대신이 구하는 약을 보내주지 않기는 곤란하다. 또, 사적(私的)으로 보내 주는 것이 또한 어떻겠는가? 성절사(聖節使)의 행차 때에 보낼 것인가? 회답할 사항을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63) 다시마의 배우체가 발생하는데 적당한 수온은 대체적으로 0.6~10℃정도이다.(국립수산진흥원, 「다시마 양식」, 국립수산과학원, 1974, pp.14~15)

64) 다시마는 寒海性해조류로, 일본의 북해도나 우리나라 동해안 북부해역에서만 서식하며 원산만 이남 해역에서는 자연적으로 서식하지 않는다. 예부터 우리나라의 함경도지방 연안에서 다시마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참다시마로 생각된다. 강원 연안에서 서식하는 다시마는 개다시마로 원산 이북의 다시마와는 별개이다. (국립수산진흥원, 위의 논문, pp.1~2)

65) 미역양식은 1300년대 이후에나 가능했다.(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다시마의 양식은 20C 중반에서야 가능했다.(국립수산진흥원, 앞의 논문, p.1)

66) 唐慎微,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南天書局有限公司, 1976, p.222

67) 세종 6년 11월에 大提學 卞季良을 불러 各道 各邑의 古今 沿革, 山川의 形勢, 風俗, 戶口, 土產 등을 조사하여 各道の 地理志 및 月令을 撰케 하였는데 이것이 世宗實錄에 附기된 世宗地理志다...중략...각도에서 산출되는 토산품과 그 道로부터 중앙에 공납하는 藥材들을 기입하고, 그 다음에는 各道에 소속된 牧 府 郡 縣들의 別에 따라 제각기 厥貢 藥草 土產 등에 나누어 자세히 조사되었다.(김두중, 『韓國醫學史』, 탐구당, 1981, p.208)

다. 책성의 두시 (柵城之豉)

柵城은 『渤海考』에서 언급한대로 濊貊故地이며 발해의 5경 중 하나인 동경 용원부로 현재 길림성 훈춘시 팔련성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⁶⁸⁾ 대략적인 위치는 <그림2>에서 확인할 수 있다.

豉에 대한 해석을 그 동안에는 ‘된장’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타당한 해석이 아니다. 그 이유는 먼저 豉라는 글자의 뜻이 메주이기 때문이다. 『說文解字』⁶⁹⁾에서는 菘라는 글자로 나타나있으며, ‘配鹽幽赤’이라 하였는데, 赤이란 豆이고, 幽는 어둡다는 뜻이니, 콩을 어두운 곳에서 소금을 섞어 발효시킨 것이며,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된 고유의 음식 문화이다.⁷⁰⁾

중국에서는 漢代의 문헌인 『急就篇』에 비로소 鹽豉라는 말이 나오고, 漢代의 馬王堆 漢墓(BC.186년경)에서 豆豉姜이 豉의 실물로서 비로소 나타났다. 그리고 晉代(265~316)의 『博物志』에서 “外國에 豉가 있다”고 하였으며, 宋代의 『學齋佔畢』에서는 “九經속에 豉란 字가 없고, 方言에 豉가 있을 뿐이다”고 하였다. 이로써 豉는 중국사람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외국산인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史記』 食貨志에 의하면 “豉 만들기는 외국 것이니 아무나 만들 수 없어 豉 제조업자의 이윤은 3~5할에 이르니 어찌 부자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⁷¹⁾ 그러므로 豉는 본래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콩의 원산지가 만주지방내지는 한반도이며,⁷²⁾ 『三國志魏志東夷傳』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善醬釀’한다고 한 것을 고려했을 때, 豉는 우리 민족에게서 중국으로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식생활에 콩으로 만든 醬을 사용해왔음을 알게 해주는 기록이 있다. 『三國史記』에 보면 신라 神文王의 폐백 품목이 나오는데,⁷³⁾ 이 가운데 醬과 豉가 들어있다. 왕실의 폐백품목에도 醬과 豉가 들어가 있을 정도였으니 그만큼 식생활에서 중요한 물품이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豆豉가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豉는 음식재료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약재로 사용해왔다. 東漢시대의 장중경의 『傷

68) 유득공 著 송기호 譯, 『발해고』, 흥익출판사, 2001, p.101

69) 段玉裁, 『說文解字注』, 대성문화사, p336

70) 윤서석,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역사』, 신광출판사, 1999, p.222

71) 이성우,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역사적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Vol.3, No.4, 1988, p.355

72) 북한의 김종윤은 만주남부에 200 남짓한 품종이 있는데, 한반도 내에는 900 남짓한 품종이 있으니 콩의 원산지는 한반도 내라 하였고, 또 권신환은 야생콩이나 재래종 콩은 잎이 모두 둥글고 넓은데 비하여 만주 지방에서 수집된 것은 한결 잎이 길고, 또 한국 콩의 ‘tripsin inhibitor’란 소화장애 물질이 만주남부와는 다른 특유한 것임을 알아내었다. 이들과 VAVILOV의 설 등을 아울러 견주어 보면 콩 원산지는 만주남부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내이다. (이성우, 『古代韓國食生活史研究』, 향문사, 1992, pp.114~115)

73) 『三國史記 · 新羅本紀』 神文王 條

“三年春二月, 以順知爲中侍 納一吉澹金欽運少女爲夫人 先差伊澹文穎波珍澹三光定期 以大阿澹智常納采 幣帛十五擧 米·酒·油·蜜·醬·鼓·脯·醢一百三十五擧, 租一百五十車”

寒論』의 梔子豉湯과 瓜蒂散 조문에서 豉가 약재로 처음 등장하니 豆豉가 『傷寒論』 이래로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본론 2장에서 언급한대로 체질적으로 胸膈에 氣가 鬱滯되어 化火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극복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콩을 발효시킨 豆醬을 이용해왔다. 중국에서 豆豉를 약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豆豉에 대한 지식이 우리 민족으로부터 중국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발해에 생산된 豆豉가 『新唐書』에 까지 기록될 정도로 유명했던 것은, 이러한 약재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

라. 기타 발해의 약재

부여의 사슴에서는 鹿茸, 鹿角, 鹿角膠 등을 막힐의 돼지에서는 猪膽, 猪肚, 猪足, 猪膚, 猪肉 등을 용주의 비단에서는 누에의 白蠶鬚을, 뽕나무에서는 桑寄生, 桑葉, 桑白皮, 桑枝, 桑椹 등의 약재를 사용하였을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渤海考』의 기록 이외에도 발해산 약재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다. 발해에 썩떡을 해먹는 풍속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발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썩을 약재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발해와 중국, 발해와 일본 간의 교류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발해의 사신이 각 나라에 가져갔던 선물의 품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약재에 해당하는 것이 人蔘, 牛黃, 海松子, 昆布, 黃明膠, 白附子, 麝香, 蜜이다.⁷⁴⁾

이상과 같이 발해에서 나는 약재들에 대해서 찾아보았다. 이를 다시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발해는 이외에도 다양한 약재를 생산하고 사용하였겠지만 연구가 폭넓지 못하여 본 논문에서는 <표3>에 보이는 약재들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추후에 보다 자세한 조사를 통하여 발해의 약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발해의 본초학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3> 발해의 대표적인 약재

출전	약재
『渤海考』의 物産考	菟絲子, 昆布, 豆豉, 鹿茸, 鹿角, 鹿骨, 鹿髓, 鹿血, 鹿肉, 鹿腎, 鹿蹄, 鹿筋, 豚卵, 豚肉, 猪膽, 猪肚, 猪膚, 猪四足, 白蠶鬚, 桑寄生, 桑枝, 桑葉, 桑白皮, 桑椹, 桑花, 鯽魚, 李, 梨
『冊府元龜』	人蔘, 牛黃, 海松子, 昆布, 黃明膠, 白附子, 麝香, 蜜

74) 서병국, 『발해국과 유민의 역사』, 대진대학교출판부, 2004, p.61 / 『冊府元龜』 外臣部 朝貢

結 論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발해의학의 면모를 밝히기 위해 통시적·공시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인 틀을 세워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발해는 先代인 고구려의 우수한 문화를 계승하여 근간으로 삼았으며, 주변 국가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여 우수한 문화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발해의학은 고구려의학을 계승함으로써 고유 의학의 정통성을 계승하였고, 당과 후기신라 등 주변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의학지식을 받아들이고 고유 의학과 잘 조화를 시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발해의학은 後代의 고려가 계승하였다.

2. 발해에 나타난 고유 의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리 민족의 체질적인 특징을 극복하기 위해 단오날 쭉떡을 만들어 먹는 풍속이 있었으며, 발해의 귀하게 여긴 산물에 ‘昆布’나 ‘豆豉’가 포함되었다. 또한 고구려와 같이 발해도 온돌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과질환의 치료를 위해 治腫醫學을 이어받아 발전시켰다. 그리고 발해에는 향약에 관한 전통도 발해에 존재하였다. 또한 발해에 중국에도 없던 많은 수의 醫經이 있었다는 것은 발해에도 경전을 중시하는 고유의 전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발해가 고유의 의학 전통을 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3. 발해의 의료제도와 의학교육제도는 고구려의 것을 기본으로 하고, 당과 신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설립되었다. 이는 훗날 고려의 의료제도의 설립과 의학교육에 영향을 주어 고려에서 『劉涓子方』 같은 癰瘍에 관한 전문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으로 파견된 발해의 사절단의 醫師는, 발해의 우수한 의학을 일본으로 전해주어 일본 의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4. 발해는 침구학 분야에서 민족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침의 제조에 관해서는 고조선과 고구려를 통해 내려온 우수한 가공기술과, 高麗銅으로 대표되는 양질의 재료를 바탕으로 우수한 침을 생산하였다. 또한 고구려의 침술의 뛰어난 것이 주변국에까지 유명했던 것을 통해 발해의 침술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침구에 대한 오랜 전통으로 말미암아 남북국시대에는 침구의 이론으로 국가와 국토의 질병을 치료하는 ‘裨補說’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발해의 침구학의 수준이 당시 최고의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발해는 경전을 중시하는 고유의 전통을 바탕으로 『神農本草經』을 중심으로 본초학을

교육하였다. 또한 발해는 넓은 영토와 독자적인 약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약재들이 많이 생산하고 사용하였으며 주변국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新唐書』의 발해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菟絲子, 昆布, 豆豉 등의 약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항목에서도 鹿茸, 鹿角, 桑寄生, 桑枝, 桑白皮, 白僵蠶, 猪膽, 猪膚 등의 약재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헌상의 기록을 통해 발해가 人蔘, 牛黃, 松子, 黃明膠, 白附子, 麝香, 蜜 등의 약재를 주변 국가에 수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자료의 부족과 연구자의 한계로 인해, 발해의학의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개관을 작성하는 수준의 연구밖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논문이 발해의학의 면모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추후에는 발해의학에 대한 내용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다.

參考文獻

- 김기욱 외,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2006
 김두중, 『韓國醫學史』, 탐구당, 1981
 동의문헌연구실 편역, 『신편·대역 동의보감』, 법민문화사, 2005
 이재동·김남일 공편,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집문당, 1997
 진주표 편역, 『상한론용어사전』, 법민문화사, 2006
 한국한의학연구원, 『高麗時代 以前 韓醫藥學에 관한 연구』, 1996
 한국의학대계 권41, 「本草精華」, 여강출판사, 1988, 서울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下冊』, 上海科學技術出版社
 강무학, 『한국세시풍속기』, 집문당, 1995
 공우석, 『한반도 식생사』, 아카넷, 2003
 김성구 역, 『中國正史朝鮮列國傳』, 동문선, 1996
 김준봉·리신호, 『온돌 그 찬란한 구들문화』, 청흥, 2006
 마백영·고희·홍중립 著 정우열 譯, 『中外醫學文化交流史』, 전파출판사, 1997
 방학봉, 『발해의 문화1』, 정토출판, 2005
 서궁 著·민족문화추진회 譯, 『송나라 사신, 고려를 그리다 고려도경』, 서해문집, 2005
 서병국, 『발해국과 유민의 역사』, 대진대학교출판부, 2000
 서병국, 『발해사 1권~6권』, 한국학술정보(주), 2006
 양은용 編, 『渤海史料集成』, 일중사, 1989
 유소민 著 박기수 차경애 譯, 『기후의 반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윤내현, 『고조선 연구』, 일지사, 2004

- 이성우, 『韓國食經大典』, 향문사, 1998
- 전상운, 『한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 정재서 역주, 『산해경』, 민음사, 2005
- 정진현, 『발해고』, 서해문집, 2006
- 최원석, 『한국의 풍수와 비보』, 민속원, 2004
- 최재석, 『통일신라 · 발해와 일본의 관계』, 일지사, 1993
-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지음, 『아틀라스 한국사』, 사계절, 2005
- 한규철,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1994
- 『新訂增補國史大系』卷18 類聚三代格, 吉川弘文館, 1972
- 김홍균, 「高麗時代 醫學史觀 叱正(1)」,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Vol.9/No.1, 2003
- 김홍균, 「조선중기 의학의 계통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2
- 강연석, 「鄉藥集成方の 鄉藥醫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 조미숙, 「趙廷俊의 及幼方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04
- 차웅석, 「桑韓醫談과 韓日醫學文化交流」, 한국의사학회지 17권 2호, 2004, pp.73-98
- 백용현 외 4인, 「침 금속재료에 대한 생체적합성 연구 - 화학적 조성 및 기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 대한침구학회지, Vol.21, No.4, 2004
- 국립수산진흥원, 「다시마 양식」, 국립수산과학원, 1974
- 이성우,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역사적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Vol.3, No.4, 1988